

科學的인 資料處理

강 석 공

<업무부 심사과대리>

우리의 신조어도 표현되어 있듯이 미래의 위대한 화재보험협회상을 그리며 이곳에 모인 우리, 그러나 맡은 바 일에 임하는 자세는 너무도 소극적이 아닌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더 나은 봉사를 실천에 옮기기 위한 새로운 방법의 선택 사용에 우리는 너무 주저하고 있으며, 자신의 생각이나 제시하는 방법이 주위 사람들로 부터 비난 받는 것이 두려워 망설이기만 하다가 아예 포기해 버리는 경우도 많았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음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올해로 독립 200주년을 맞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복받은 나라로서 치경되는 이유중 가장 중요한 하나가 바로 그 나라 국민들의 끊임없는 개혁정신, 다시 말해서 매사에 적극적이고 또한 진취적인 국민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할 때 우리도 선배들이 쌓아 올린 업적의 그늘 밑에 편안히 앉아 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부터라도 과감히 일이나 선배들이 이룩해 놓은 업적을 비판으로 더 높은 이상의 실천을 위해 더 많이 배우고 익히며 한층 더 땀흘려 일할 때가 우리 앞에 온 것이라 잘라 말하고 싶다. 한 두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본다면 대외적으로는 보험 계약자나 점점대상 소유주가 궁금해 하는 일들을 풀어 줘야 하며, 그들의 권익보호에 전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재산 보호가 화재보험협회 설립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취지라는 점을 우리 모두가 철저히 인식해야만 할 것이고 자신이 취급하는 일에 대한 사명감과 자부심이 없을 때 고객에 대한 진실한 봉사를 얻을 수 없으며, 그 결과는 개인의 불친절이라는 오명보다는 화재보험협회 자체에 대한 불신감, 나쁜 인상들을 결정 짓는 요소가 되기 십상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어서는 안되겠다.

내내적으로는 금지와 신념에서 비롯한 봉사의 실천을 위해 정신적, 물질적 배려가 새삼 강조된다. 직원 각자에게는 자질향상과 사명감 진작을 위한 끊임없는 교육의 실시가 요구되고, 업무 개선책으로서는 적절하고 과감한 인력 관리 및 사용 도구의 기계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특히 보험 업무에 있어서 자료의 정리, 관리 및 유지 또는 활용 문제는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이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적절하다고 볼 수 만은 없는 것이다. 증가일로에 있는 계약 건수로 인해 계약 인수액도 손이 모자라지만 인수한 계약의 심사 또는 사원사에 대한 배분과정 또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종종 그 내용에 소홀하지 않을 수 없게됨이 현재의 실정이다. 또한 통계 자료의 작성 보관 방법이 전적으로 인력에 의해서 이뤄짐에 따라 통계 자료 특유의 정확성을 기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과정을 거쳐 작성 정리한 청약서를 비롯한 각종 자료의 보관 또한 너무도 구태의연한 방법에 의존하기 때문에 필요한 시기에 효율

적으로 활용하기에는 난점이 있다. 이런 점을 볼 때 모든 통계자료의 Microfilm 化 또는 E.D.P.S 化가 시급히 요구 된다.

이러한 과학적인 자료 처리 방안이 그동안도 여러 사람에게 의해 간헐적으로나마 수차례 건의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때 마다 예산의 부족이나 혼허 예상하는 인력의 감축이라는 우려로 인해 그 시행이 보류되어 왔다. 그러나 새로운 자료 처리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남는 인력을 현재 일손이 모자라시 절절때는 계약 인수 담당 부서로 전환 보직함으로써 기대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음은 확실히 되며, 또한 예산상의 이유로 새로운 자료 처리 방법과 예전의 방법을 이종으로 사용하지 않는 한 오히려 경비 절감 효과가 더 크리라는것은 확실히 다짐해 둘 수도 있다. 따라서 지원을 빌어 새롭고, 과학적인 자료 처리 방법의 도입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다. 종종 새로운 경영 방식의 채택에는 시행 착오도 범할 수 있지만 이미 관공서나 여타 기관에서는 수년전 부터 시행되어온 방식을 우리도 채택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방과 안전 점검업무나 보험 계약 인수 업무에 공히 활용하자는 것 뿐이다. 대략 이나마 이런 저런 일들을 의색지 불때 우리의 화재보험협회는 아직도 어리지만 하고 모자란것들 투성이지만 우리들 모두가 자신의 모든 힘과 정열을 쏟아 넣고 온 몸과 마음을 한데 뭉쳐 새롭고 위대한 모습의 화재보험협회를 가꾸려고만 한다면 우리 앞의 어떤 어려움도 능히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것을 확신한다. (끝)